



경제동향



요약

고용 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생산 제조업지수/출하·재고지수

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물가 소비자물가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장윤선 연구원 changyus@si.re.kr

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/주택월세가격

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설·부도/신용보증

수출입 수출입액/품목별 수출입/국가별 수출입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최윤진 연구원 erdene@si.re.kr

경제동향 | 요약



고용

-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(-0.4%) 감소
- 산업별로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(-7.3%) 가장 크게 감소
-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한 반면,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.3% 감소
- 고용률은 59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하락, 실업률은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



생산

-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.9로 전년 동월 대비 3.8% 증가
- 4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6% 증가, 재고지수는 8.1% 감소하여 경기 회복/상승 국면을 시사



소비

-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,6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 하였으며, 전국(6조 5,715억 원)의 34.4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(1.9%), 대형마트 판매액(4.2%)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

물가

-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1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5%의 소폭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- 신선식품물가지수(7.7%), 서비스물가지수(2.7%), 생활물가지수(0.9%)는 상승한 반면, 상품물가지수(-0.3%)는 하락



부동산

-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4개월째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월 대비 0.10% 상승한 100.4 기록
-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8% 상승한 101.0으로 2개월 연속 상승폭 축소
- 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3으로 준월세 하락폭은 축소되고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월 대비 0.01% 상승



금융

- 서울의 4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43조 6,65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7% 증가
- 서울의 4월 가계대출 잔액은 245조 3,7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7% 증가
- 서울의 4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7조 507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,154억 원 (0.8%) 증가,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.0%
-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는 2,766개로 전월 대비 3.8% 감소, 부도법인 수는 7개로 전월보다 4개 감소
- 서울의 4월 보증지원금액은 805.9억 원, 보증지원건수는 3,57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3.8%, 32.6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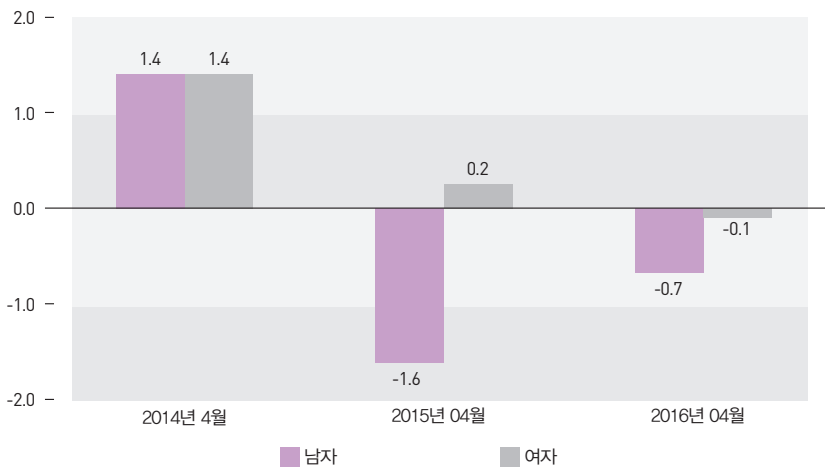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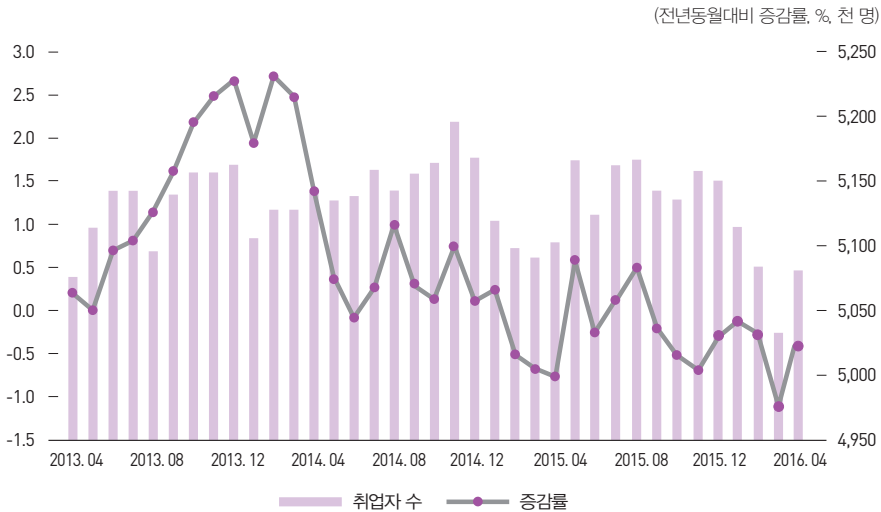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- 서울의 4월 수출액은 55.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.6% 증가,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4월 수입액은 98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1.3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취업자

서울의 4월 취업자 수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4% 감소

-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(-0.4%)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1천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(-0.7%) 감소, 여자는 22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(-0.1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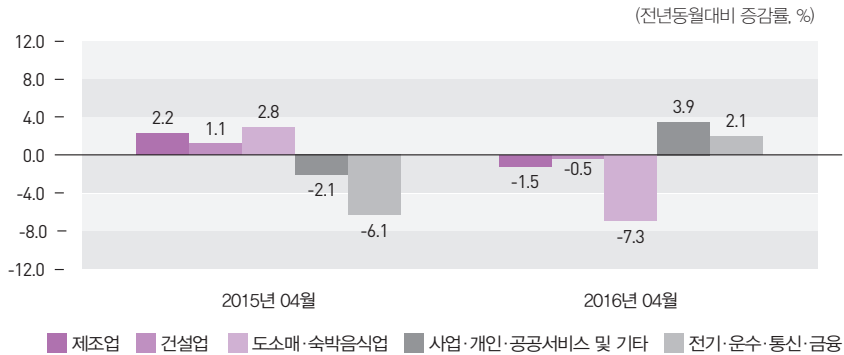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서울의 4월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이 가장 크게 감소

-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 10만 6천 명(-7.3%), 제조업 8천 명(-1.5%), 건설업 2천 명(-0.5%) 감소한 반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만 명(3.9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1만 6천 명(2.1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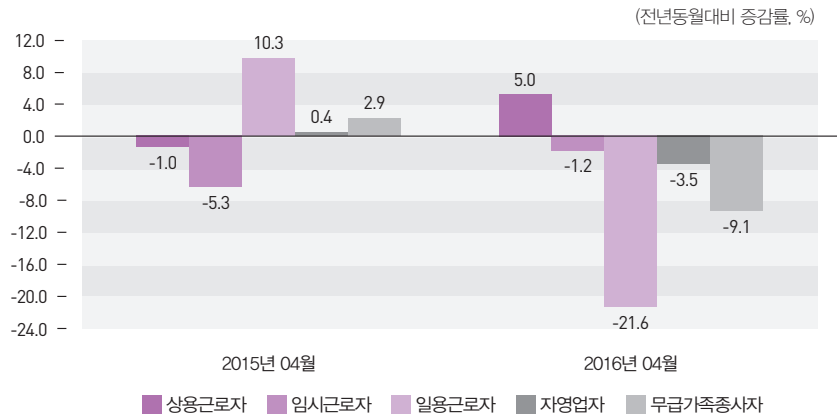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

서울은 4월에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, 비임금 근로자는 모두 감소

-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(0.6%) 증가,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8천 명(-4.3%)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만 5천 명(5.0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1만 4천 명(-1.2%), 일용근로자는 8만 5천 명(-21.6%) 감소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만 4천 명(-3.5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천 명(-9.1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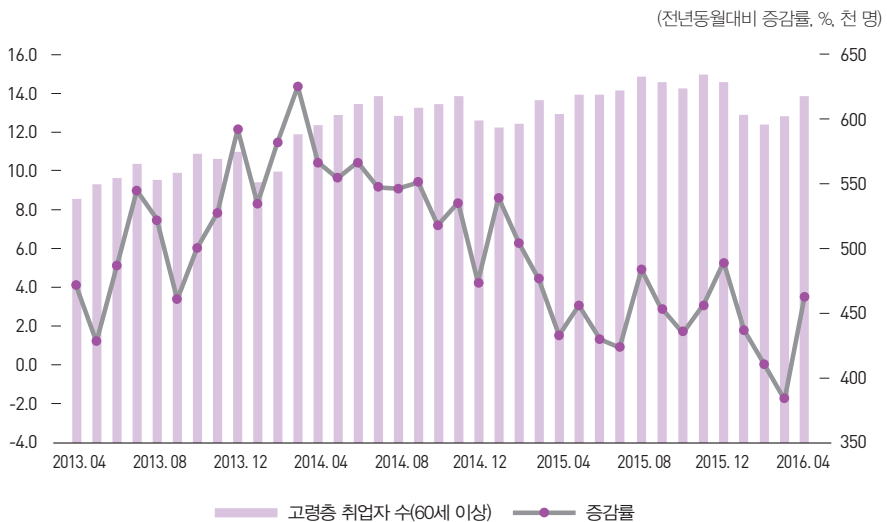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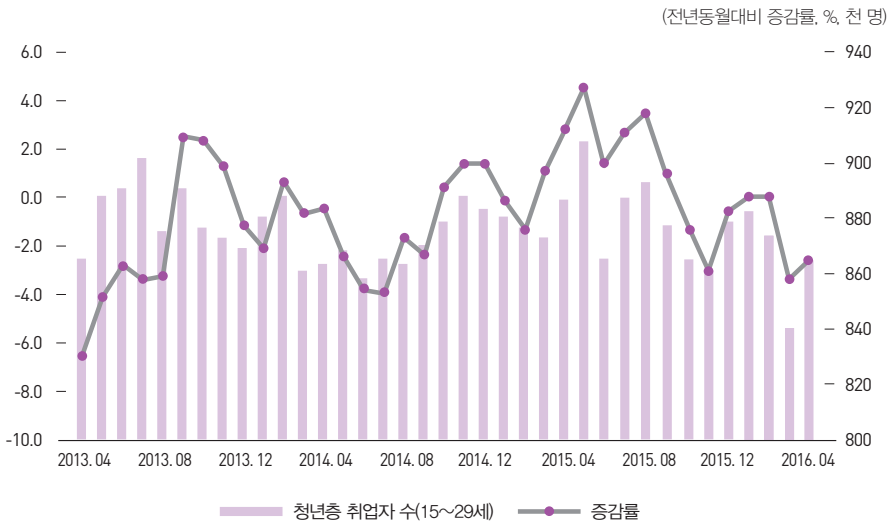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

서울의 4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증가

- 서울의 4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8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4% 감소
- 서울의 4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6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4% 증가
- 올해부터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던 고령층 취업자는 4월에 상승세 회복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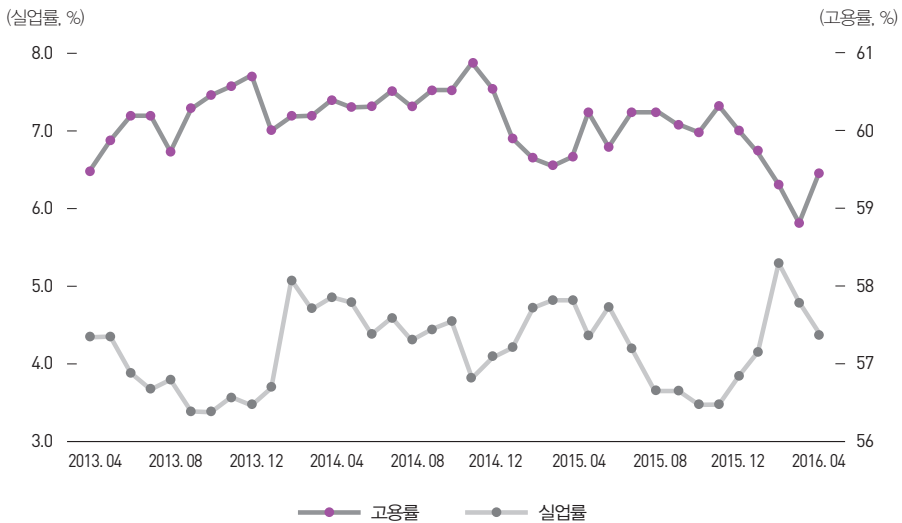
고용률 및 실업률

서울의 4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, 전국 대비 낮은 수준

-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감소했으며 전국(60.3%) 보다도 낮은 수준 유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하락, 여자는 50.8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상승

서울의 4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소폭 높은 수준

-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 명(-9.3%) 감소
- 실업률은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, 여자는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각각 하락
- 2016년 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7%)에 비하여 0.6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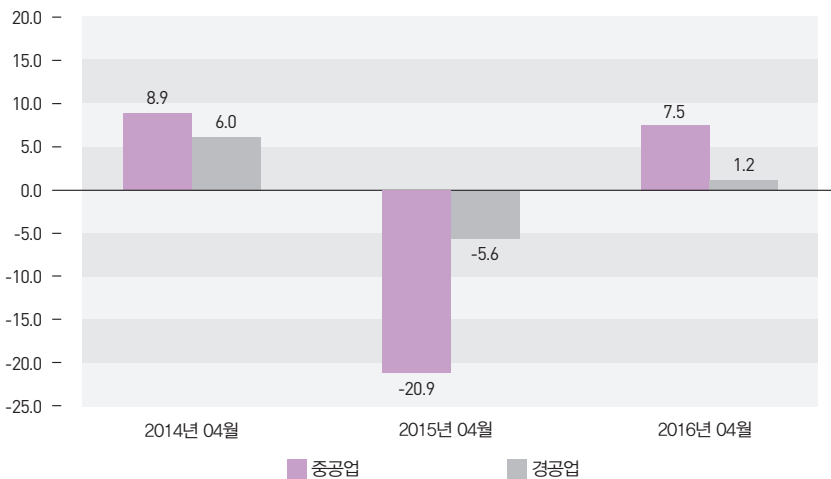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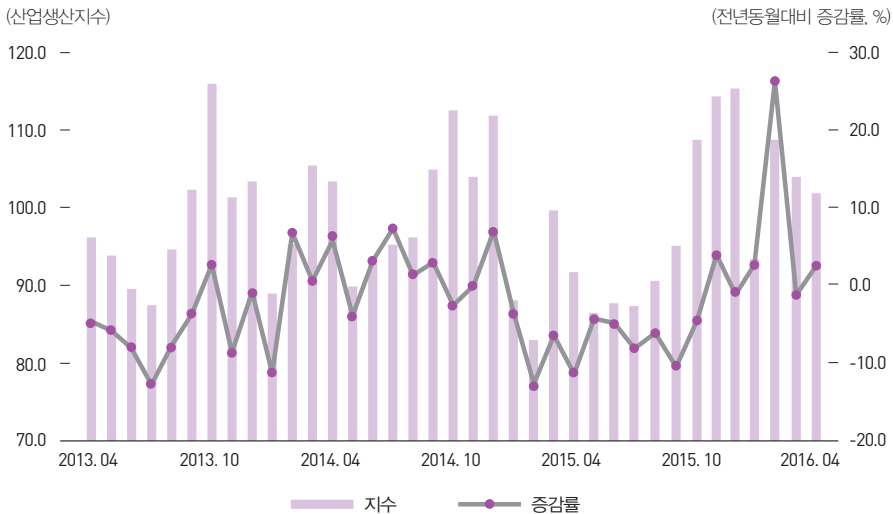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생산

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1.9(2010=100)로 전년 동월 대비 3.8% 증가

-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8%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정(正)의 성장률 기록
-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7.5%, 경공업은 1.2% 각각 증가
-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기계장비(66.5%), 의료정밀광학(37.3%), 의복 및 모피(4.8%) 등은 증가한 반면, 가죽 및 신발(-12.5%), 전기·가스·증기업(-12.0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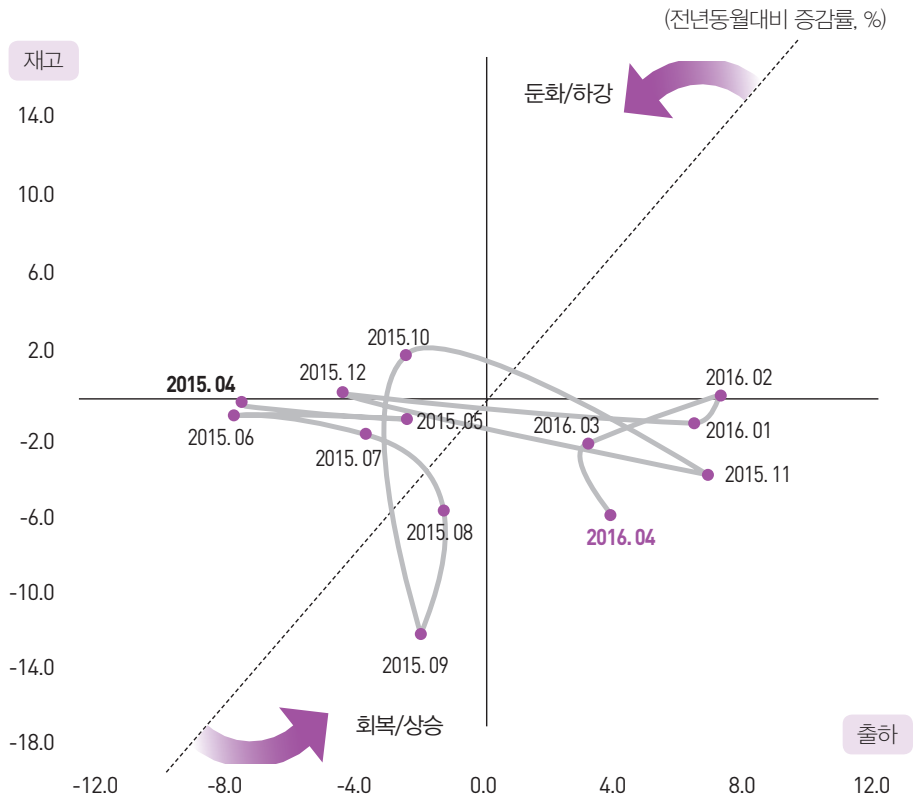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4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6% 증가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.1% 감소하여 경기 회복/상승 국면을 시사

-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106.0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3.6% 증가
-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34.5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8.1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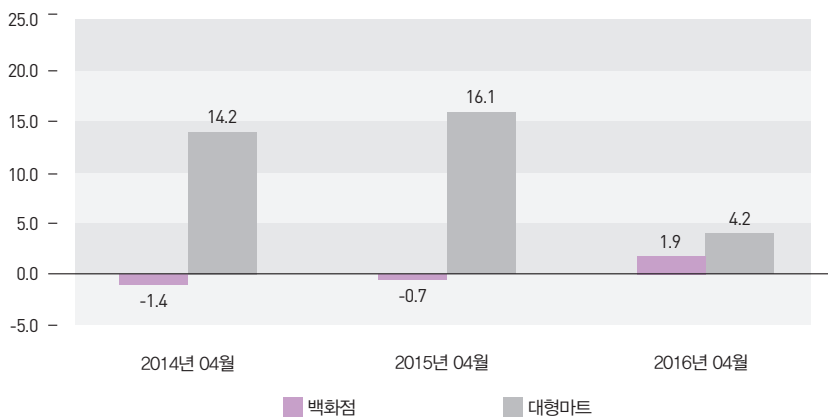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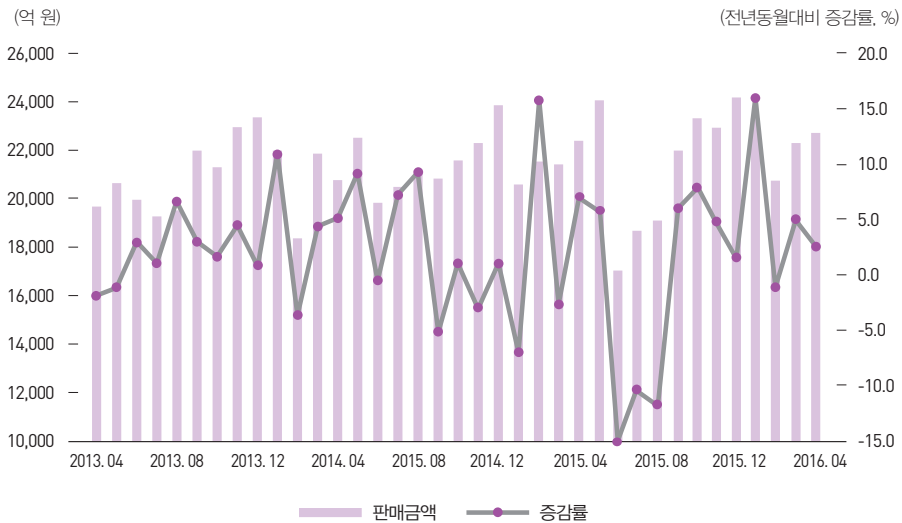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소비

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

-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,635억 원으로 전국(6조 5,715억 원)의 34.4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
- 4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59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9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,0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2% 증가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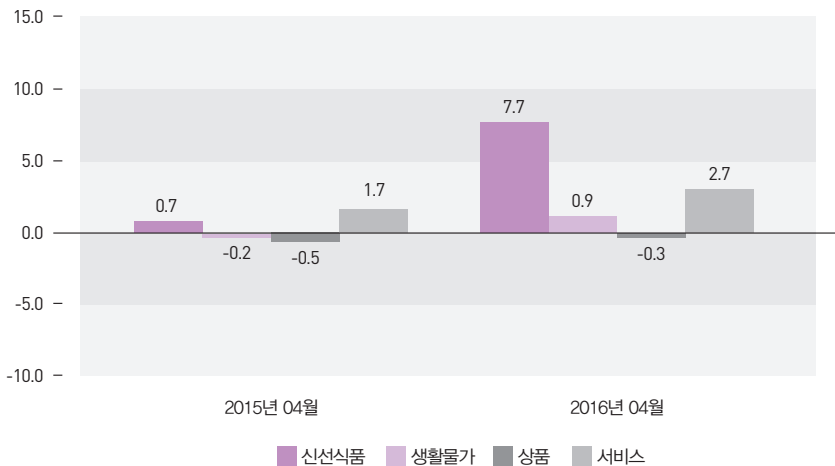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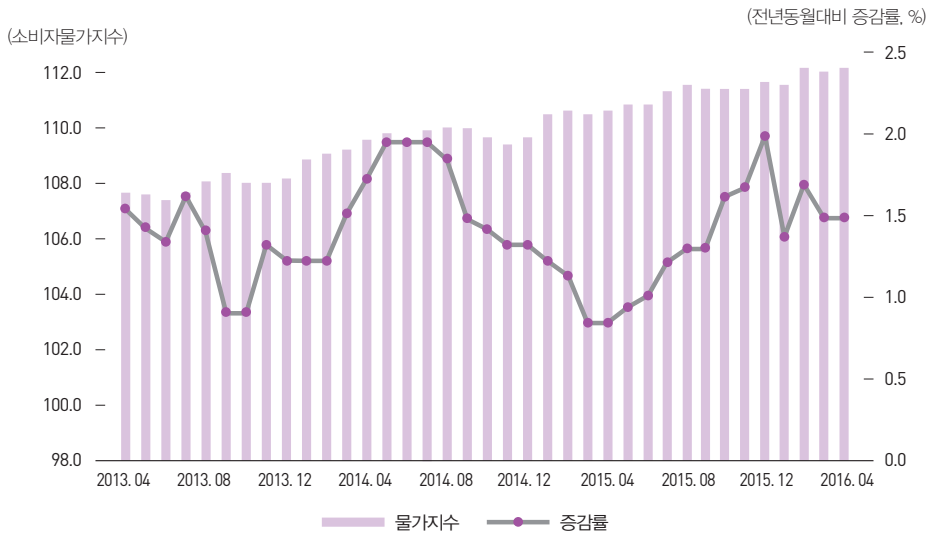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물가

물가

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5%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
-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1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5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7.7%), 서비스물가지수(2.7%), 생활물가지수(0.9%)는 상승한 반면, 상품물가지수(-0.3%)는 하락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주택매매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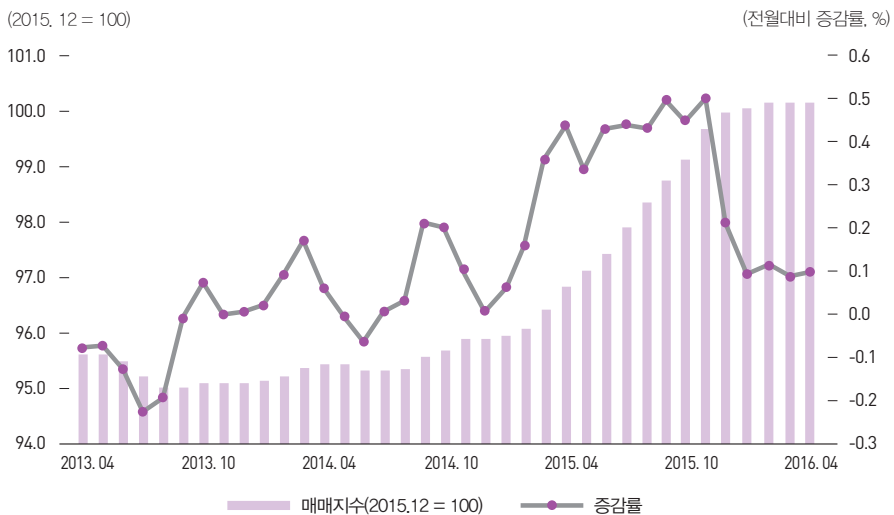
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[■]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4로 전월 대비 0.10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08%)은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중심의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세를 지속, 한강이북지역(0.12%)은 코레일 수색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은평구, 서대문구에서 높은 상승세를 기록
 - 주요 상승지역: 강남구(0.17%), 은평구(0.17%), 서대문구(0.16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→2015.12) 변경

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하락

-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4% 상승. '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' 시행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됨. 수도권(0.08%)과 5개 광역시(0.01%)는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, 기타 지방(-0.01%)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[■](1,771만 원)은 전월 대비 0.46% 상승, 거래건수(8,515건)는 20.8% 증가
- 강남구(1.34%), 서대문구(1.23%)에서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, 중구(-2.42%)에서는 하락.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(810건), 강서구(617건), 강남구(556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주택전세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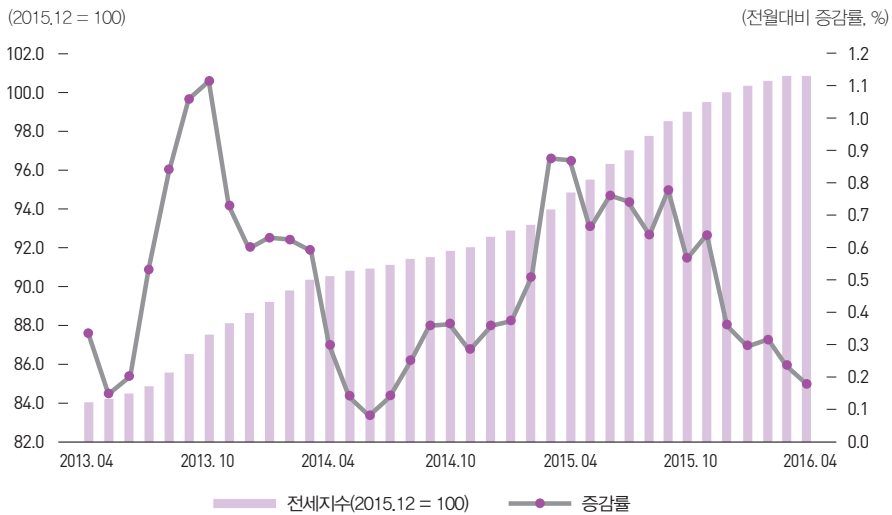
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[■]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1.0으로 전월 대비 0.18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13%)은 전월 대비 상승률 둔화. 한강이북지역(0.23%)은 중랑구에서 2018년 남양주 신도시 입주 대기수요 유입과 마포구·서대문구에서 여의도 출퇴근 직장인 수요 유입이 발생하여 상승세 지속
 - 주요 상승지역: 중랑구(0.48%), 마포구(0.37%), 서대문구(0.33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~2015.12) 변경

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1% 상승한 100.6을 기록.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이주 수요가 마무리 되며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됨. 수도권(0.16%), 5개 광역시(0.06%)는 상승률 둔화, 기타 지방(0.04%)은 소폭 확대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[■](1,257만 원)은 전월 대비 0.3% 상승, 거래건수(8,272건)는 14.3% 감소
- 서대문구(2.53%)와 종로구(1.57%)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. 거래건수는 노원구(915건), 강남구(779건), 송파구(636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주택월세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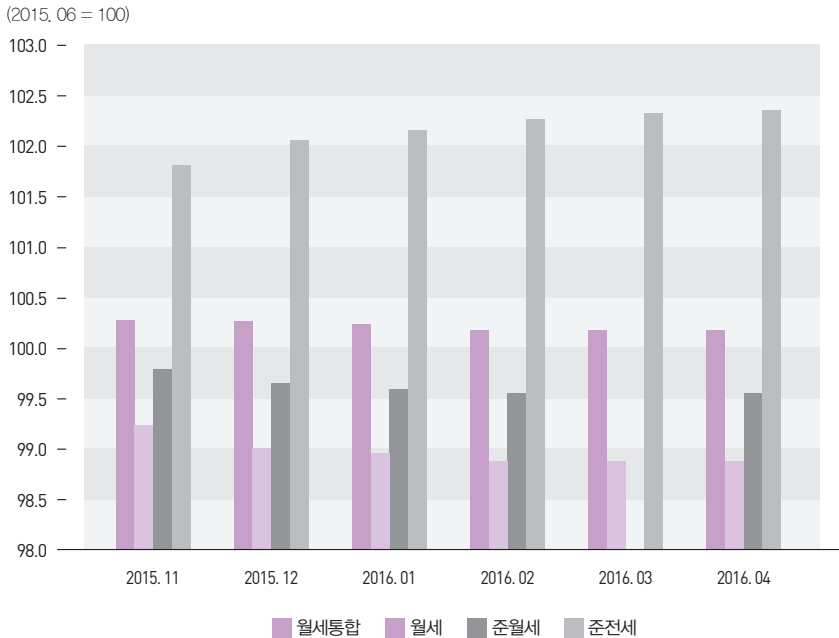
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3으로 전월 대비 0.01% 상승. '준월세'의 하락폭은 축소되고 '준전세'의 상승폭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 전환
- 한강이남지역(0.00%)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로구, 관악구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, 서초구, 강남구, 강동구의 하락폭 확대로 보합 유지. 한강이북지역(0.02%)은 중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해 전체적으로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

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'월세', 보증금이 전세금의 60% 초과하면 '준전세',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'준월세'로 구분

전국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과 보합

- 전국의 4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3으로 전월과 보합.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 부담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며 준전세를 중심으로 지난달 하락에서 보합 전환



자료 한국감정원

〈그림〉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

경제동향 |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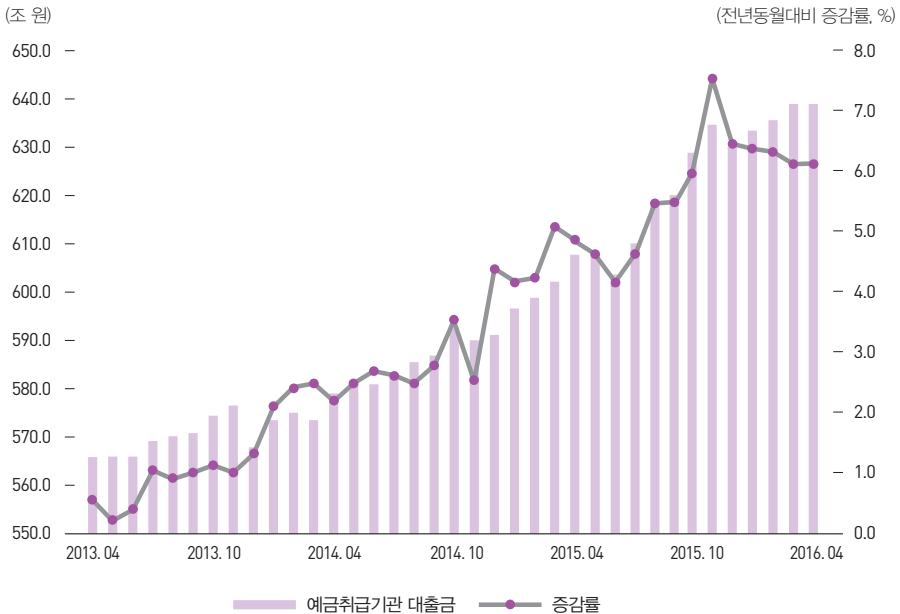
가계대출

4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43조 6,650억 원)은 전월 대비 0.7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33조 4,196억 원)과 비예금은행(110조 2,454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8%, 0.3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2%, 10.5% 증가

4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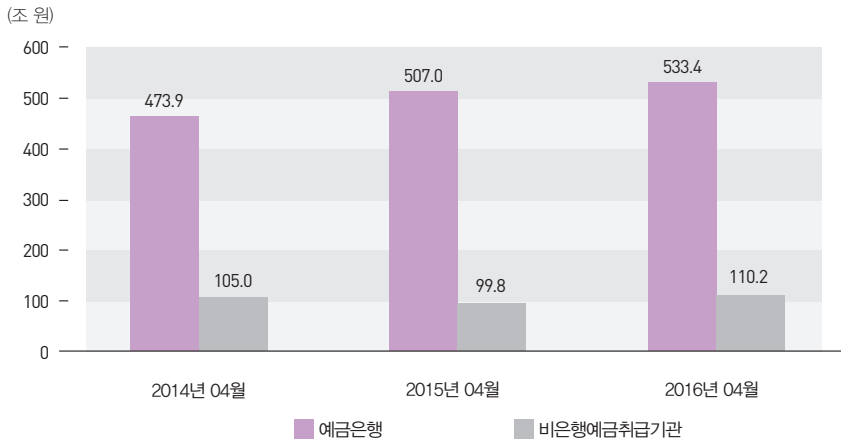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799조 5,994억 원)은 전월 대비 0.8%, 전년 동월 대비 7.7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372조 9,069억 원)과 비예금은행(426조 6,925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9%, 0.8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6%, 11.4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중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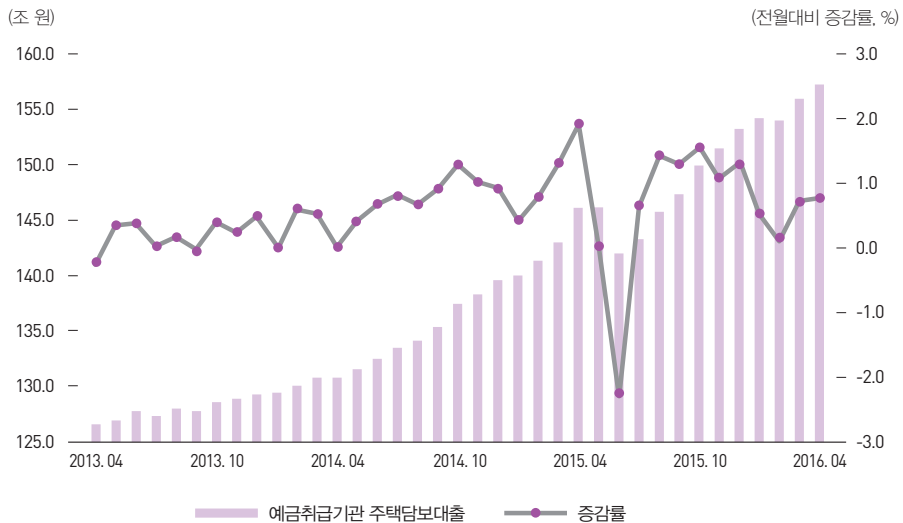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4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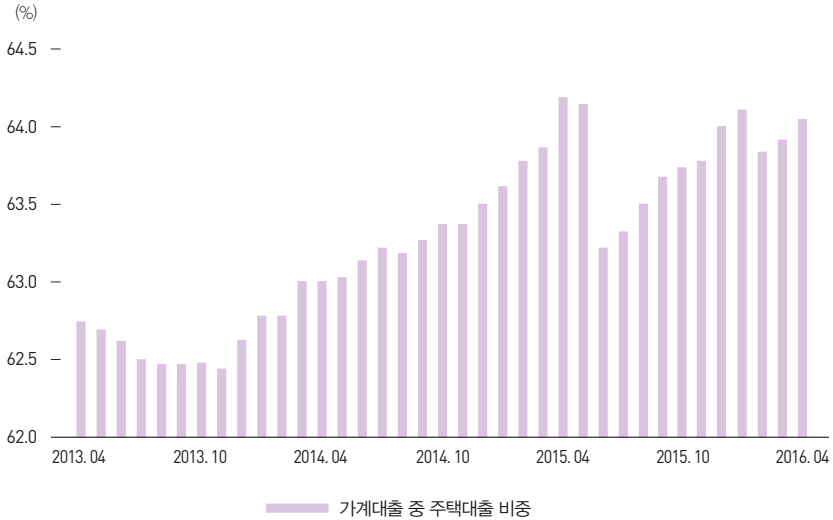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(245조 3,709억 원)은 전월(243조 7,770억 원) 대비 0.7% 증가
- 그 중 주택담보대출(157조 507억 원)은 전월(155조 7,353억 원) 대비 1조 3,154억 원(0.8%)이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4.0% 차지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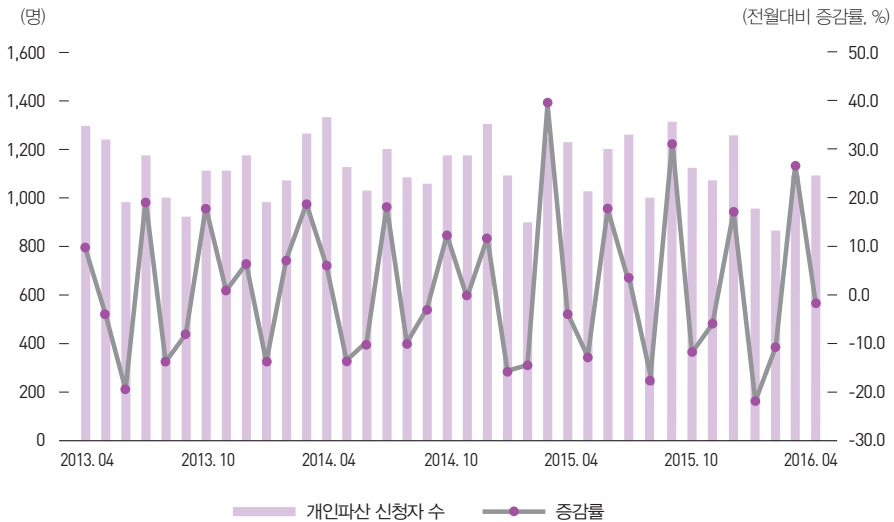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4월 개인파산 신청자(1,092명)는 전월(1,100명) 대비 0.7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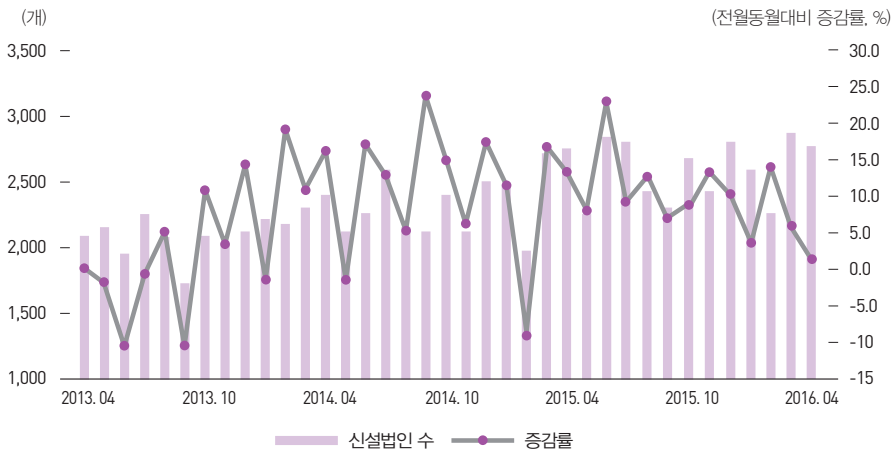
자료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신설법인

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766개로 전월 대비 3.8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.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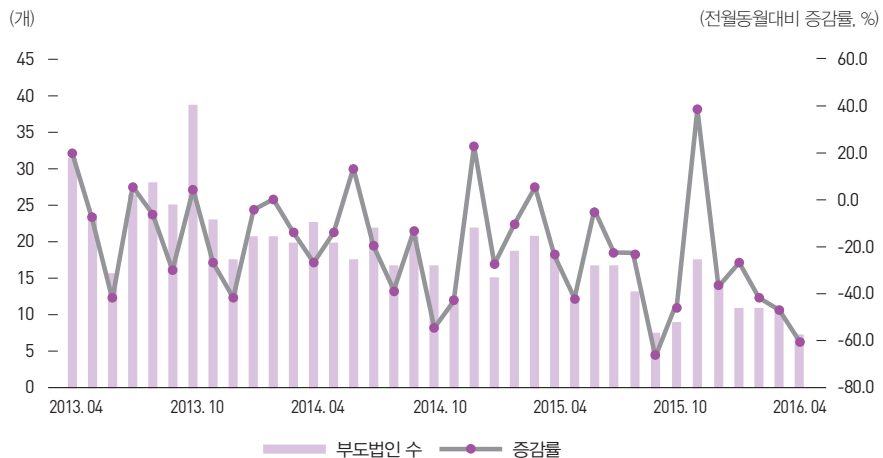


자료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서울의 4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7개로 전월(11개) 대비 4개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61.1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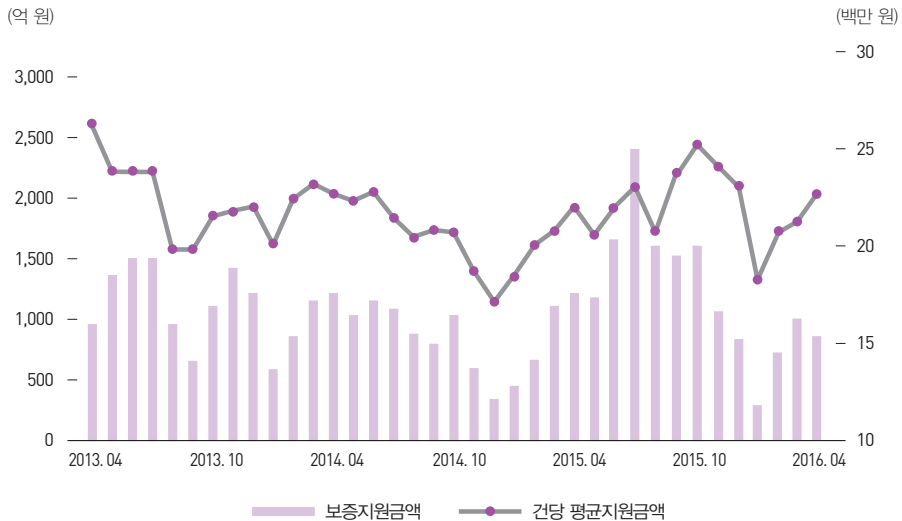
자료 금융결제원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신용보증

서울의 4월 보증지원금액,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4월 중 805.9억 원 / 3,570건
-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0.2%, 15.3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.8%, 32.6% 감소
- 건당 평균지원금액(2,260만 원)은 전월 대비 6.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.7% 감소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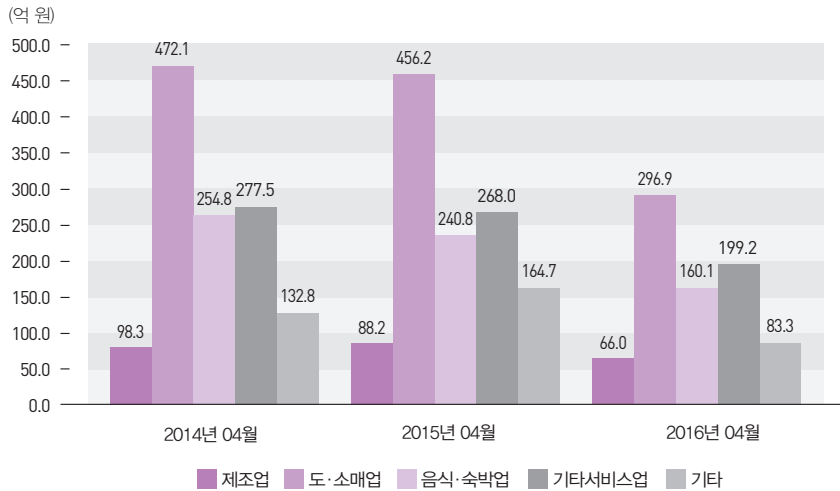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

전 업종에서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,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·소매업(36.9%), 기타서비스업(24.7%), 음식·숙박업(19.9%), 건수 기준 도·소매업(33.4%), 기타서비스업(30.2%), 음식·숙박업(20.2%) 순임
- 도·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296.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.0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4.9% 감소, 보증지원건수는 1,192건으로 전월 대비 17.0% 감소
-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199.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.7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25.7% 감소, 보증지원건수는 1,079건으로 전월 대비 9.8% 감소
- 음식·숙박업(160.1억 원), 제조업(66.0억 원)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12.1%, 19.7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.5%, 25.2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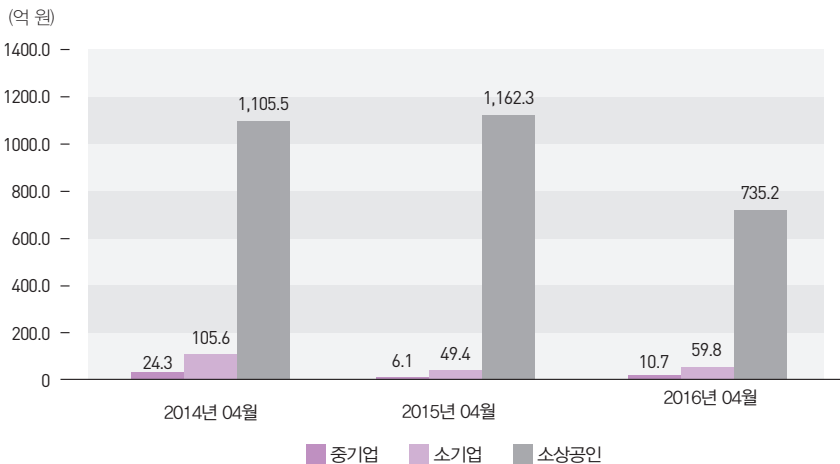
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, 중기업 보증지원은 증가

-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1.4%, 전년 동월 대비 36.8% 감소한 735.2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1.3%를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97.5%인 3,482건
- 중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.0%, 전년 동월 대비 21.0% 증가한 59.8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.4%를 차지. 중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2.2%인 77건
-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30.4%, 전년 동월 대비 74.6% 증가한 10.7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.3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.3%인 11건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경제동향 | 수출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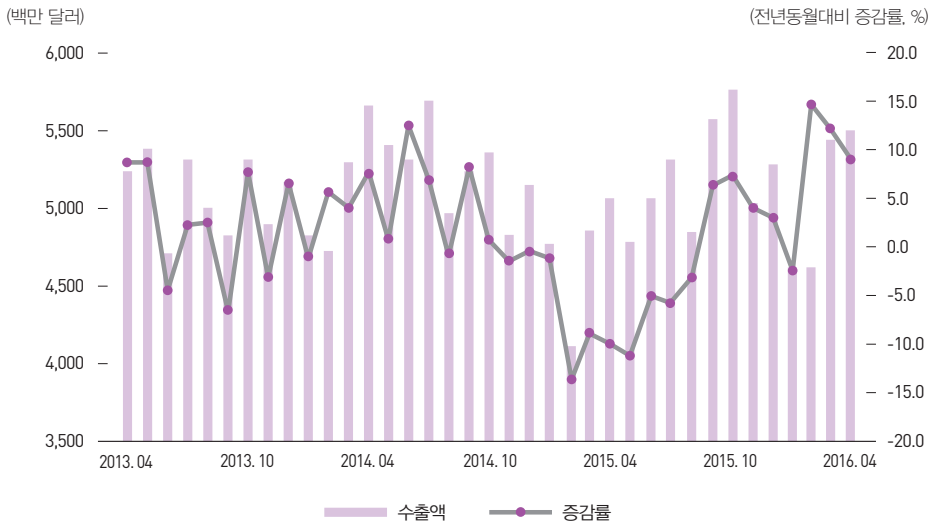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서울의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수출은 55.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.6% 증가하였고, 수입은 98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1.3% 감소
- 전국의 수출은 410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.2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22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.9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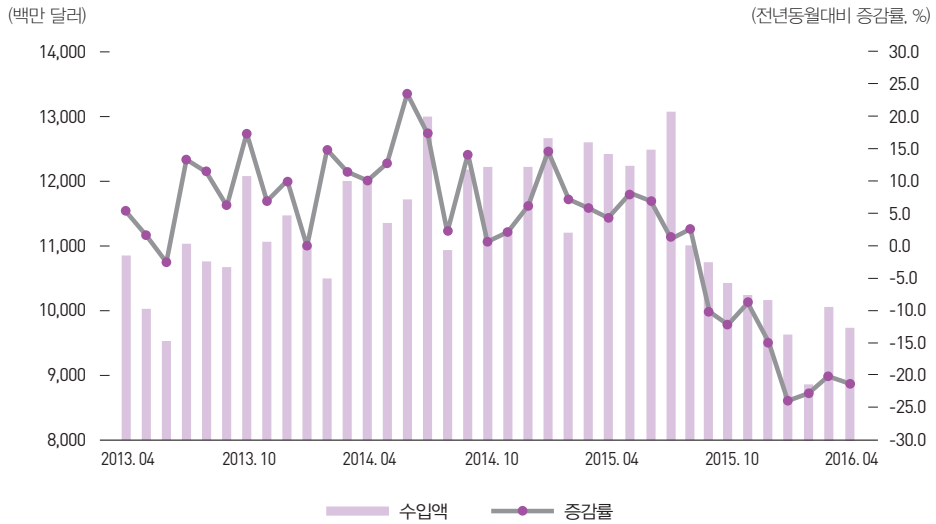
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무선통신기기, 수입 1순위는 자동차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(892백만 달러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자동차부품, 반도체, 합성수지, 편직물 순임.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월 대비 22.4% 증가하였으며, 주로 미국(255백만 달러), 중국(237백만 달러)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자동차(772백만 달러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원유, 반도체, 석유제품, 컴퓨터 순임. 자동차 수입은 전월 대비 32.6% 증가하였으며, 주로 독일(441백만 달러)과 미국(113백만 달러)으로 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. 자동차 수입 급증에 따라 처음으로 서울의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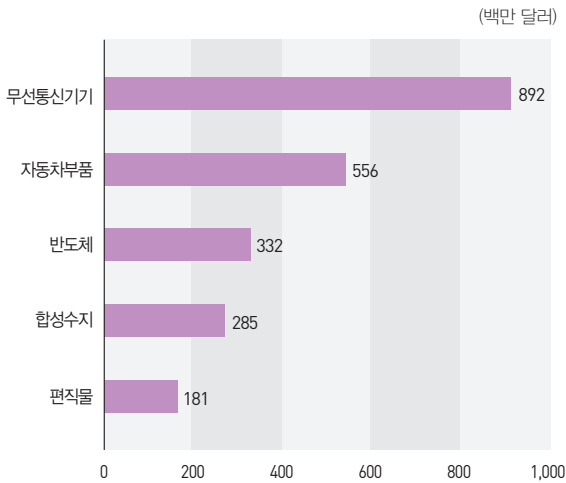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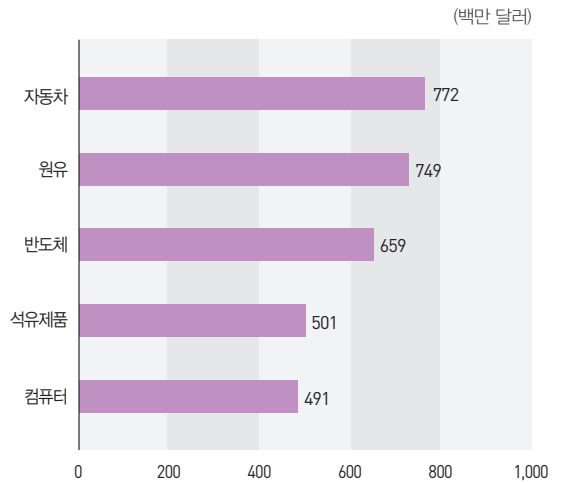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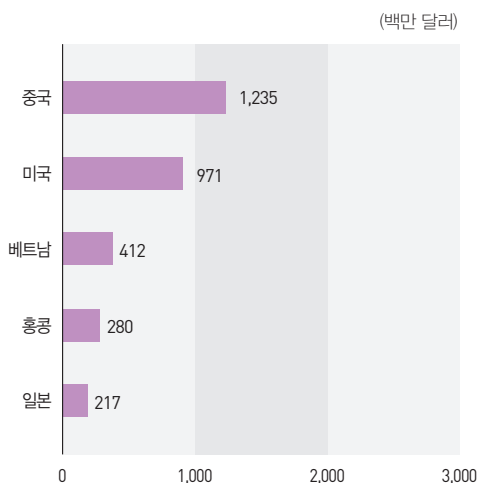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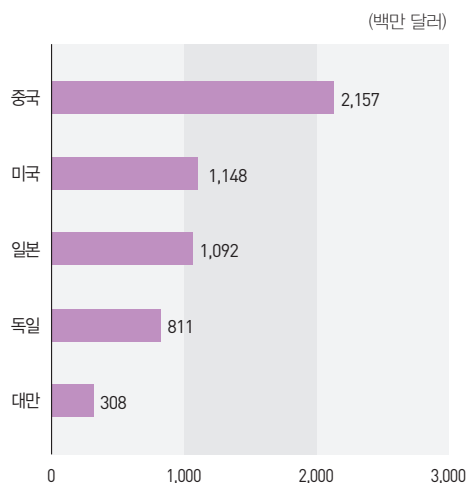
서울의 4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(1,235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홍콩, 일본 순임. 대 중국 수출액은 전월 대비 3.4%,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
-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.1%, 23.1% 증가한 반면, 베트남과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.1%, 23.8% 감소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(2,157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독일, 대만 순임. 대 중국 수입액은 전월 대비 3.3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9.6% 감소
- 국가별 수입은 대체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,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 전월 대비 각각 23.1% 증가 기록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국민은행, 『2016년 4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』
- 대한민국 법원, 법원통계월보, 『<http://www.scourt.go.kr>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』
- 서울신용보증재단, 『2016년 4월 신용보증동향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
- 중소기업청, 『2016년 4월 신설법인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감정원, 『2016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